신입사원으로 뽑고 싶다-7위 실제 취업률은 저조-40위 밖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평판·사회진출도-교수연구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평판·사회진출도 부문은 지난해 8위에서 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평판사회진출도는 지난 수년간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률'이 대표적인 개선 대상 지표였다. 지난해는 40위 밖이었다.

올해는 중앙일보가 대학의 요청을 반영해,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제외한 '순수취업률'과 '유지취업률'로 나누어 지표를 산정했지만 순수취업률은 여전히 40위 밖이었다. 유지 취업률은 22위를 기록했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실제 취업률'과 '우리학교 학생에 대한 이미지' 사이의 괴리율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기부하고 싶은 대학'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기부액 규모는 기부하고 싶은 대학 11위를 기록한 중앙대보다도 뒤처지고 9위인 한양대와도 약 50억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103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98억 3,000만 원으로 기부금이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학생에 대한 이미지와 취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처럼, 대학에 대한 이미지와 기부금 증액 사이를 연결하는 성과가 필요한 셈이다.

이밖에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6위→8위),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7위→9위) 등의 하락 역시, 외부에서 보는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최소한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는 의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교수연구 부문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10위였지만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5위로 추락한 부분이 눈에 띈다.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지원 연구비 역시 2계단 하락했다. 이 역시 재정문제의 여파가 미쳤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5위로 추락한 것을 통해 재정문제의 여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계열평균 '교수당 지적재산권 등록' 역시 11계단 하락했다. 반면 교수 당 기술이전 수입액은 작년 58억 9천440만원에서 60억3천568만원으로 3.0% 상승해 순위가 작년 19위에서 올해 15위로 올랐다. 다만 한양대 141억 8천561만원, 성균관대 96억 6천994만원 고려대 84억 9천244만원에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외에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지표는 모두 9위를 기록했고 상세지표도 상승해, 논문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면에서 이어짐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외 다른 부문 역시 하락세다. 국제화부분은 37.65점(▼2.93점)으로 전년도보다 2계단 하락한 4위, 교수연구부분은 67.7점(▼1.11점)으로 순위는 동일했다. 평판·사회진출은 42.48점(▼0.13점)으로 소폭 하락하며 순위도 한 계단 떨어진 9위였다. 4개 부문을 분석해 볼 때 결국 우리학교의 부문별 지표 개선이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쟁대학 중 일부대학의 성적 '하락폭'이 더 커, 그 반사이익으로 인한 '착시'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비롯한 7개 대학 총학생회는 결과 발표일인 지난 6일 중앙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와 같은 대학평가를 거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들은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 마음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교육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던 처음의 취지는 이미 변질되었고, 대형화와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진리추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본분에 대한 망각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의 책무를 따지고 평가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학평가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 감축안, 무소식이 희소식?

재정여건 - 학술역량 강화 사이 최적의 정원 찾기는 필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초안 공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이 나온 가운데, 정원 4% 감축안을 내놓았던 우리학교가 아직까지 감축방법이나 방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가지표'가 결정되면, 여기에 맞춰 학과평가를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이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총 16만 명의 대학정원감축을 계획한 정부 정책이다. 우리학교는 대학특성화사업안 제출 당시 4% 감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평가 지표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특성화 등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로 구성됐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지표구성과 반영비율 등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성평가 중심의 구성을 기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취업률이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재학생 충원률 등 정량평가 지표가 대다수다.

2.4% 균등감축, 1.6% 차등감축 '안' 만 나왔다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은 "4% 감축안은 정원감축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대학별 등급화를 통해 정원감축이 강제된다면, 자발적 감축을 실시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대학 본부의 입장이다. 다만 4% 감축을 한 해에 몰아서 하는 대신 2년에 나눠서 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안에 따르면 2016년에 학과별 정원 비율을 고려해 2.4% 균등감축을 시행한다. 감축 인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수점 이하 자리의 인원은 각 과의 합의를 거쳐 해결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에는 학과 평가를 통해 1.6% 차등감축을 시행, 총 4%의 정원감축이 이뤄진다. 이번 안으로 감축할 경우 2016년에 서울캠퍼스는 58명, 국제캠퍼스는 59명의 정원이 줄어들고, 2017년에는 각각 39명씩 줄어들게 된다. 등록금수입은 2017학년도 1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누적돼 편제 완성년도인 2020학년도에는 약 12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감축의 지표인 '학과평가를 위한 기준안'은 현재 대학본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학본부 4%감축안, 연도별 감축계획〉

	2016년 감축정원(균등감축)			2017년 감축정원(차등감축)			1주기 총 감축정원
	서울캠	국제캠	소계	서울캠	국제캠	소계	
구조개혁 정원감축	58	59	117	39	39	78	195

〈4%감축 시 등록금 손실액〉

※ 등록금(760만 원×0.8, 물가상승분 고려) × 감축정원(195명) = 연간 약 12억 원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2017	-12억 원				-12억 원
2018	-12억 원	-12억 원			-24억 원
2019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36억 원
2020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48억 원
편제완성년도(4년후) 기준 총 누적액					-120억 원

그러나 이 안은 현재 대학본부 내에서조차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구성원 대표와의 소통은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신문이 양 캠퍼스 총학생회 회장에게 현재 대학본부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감축안의 세부계획도 확정이 안됐으며 제대로 된 균등감축이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랑(사학 2009) 회장은 "균등감축이란 입학정원이 상이한 각 학과가 차지하는 정원 비율에 따라 감축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대학 본부가 발표한 것처럼 각 과들이 일률적으로 한 두 명씩 줄이도록 배분하는 방식은 균등분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회장 또한 "소수의 입학정원인 학과가 입을 타격에 대한 대책과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학 본부의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신문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필수적'이다.〈대학주보 제1568호 2014.05.11. 1면〉 우리학교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재적인원이 있는데 2013학년도 기준으로 34,763명이다. 취약한 우리대학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최대 재적인원을 그대로 유지해갈 것인가는 지금부터라도 구성원 간에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은 187%로 등록금 수입보다 많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마저도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평균 교육비 지급률 265%(중앙일보 2014 대학평가 3~10위 대학 평균, 1면 참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타 대학에 비해 낮은 등록금, 서울권 최대 수준의 재적인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의 조합은 재정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비 지급률 187% 서울 상위권 대학 평균 265%

중앙일보 평가 기준 10위 내 대학에서 포스텍, 한국과학기술원의 특수성, 서울대라는 국립대 프리미엄,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기부금, 중앙대, 성균관대와 같이 기업 후원을 기대하기 힘든 우리대학의 경우 최적의 정원은 장기적으로 내실을 기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정원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재정과 학문적 역량 사이의 함수라는 구조적 문제 개선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정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적의 정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해당 부서로부터 현실을 반영한 '장기 정원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성원 사이에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놀면서 취업준비하자!

내가 만든 '취업동아리' 신청안내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 만든 취업모임 또는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3인 이상이 모여 취업준비 모임을 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의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은 누구든 참가 가능하며, 막막하게만 보였던 취업의 길을 밝혀드립니다. 현재 모임이 결성되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이 있으시다면 그 그룹 그대로 신청하셔도 되고, 스터디를 만들고 싶거나 어떤 동아리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적절한 동아리를 꾸려 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및 참여바랍니다.

1. 취업동아리!!! 이런 것이 좋다!!!
- 혼자서는 몰랐던 정보 서로 교환 (취업은 정보가 생명!!!)
-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함께하면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서로 보완
- 교내 추천채용시 우대
- 컨설턴트 및 인사담당자 자소서 클리닉
-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함께하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
- 힘든 취업준비를 함께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힐링
- 취업진로지원처 노하우 전수

2. 자격요건
- 경희대학교 학부 재적생(재학생+휴학생) 및 (13년 8월, 14년 2월, 14년 8월) 학부졸업생
- 취업할 의사와 의지가 충만한 자
- 적극적인 자세로 배움에 임할 자

3. 학생의무사항
- 프로그램 시행 전 및 후 취업준비도 검사 총 2차례 실시
- 4학년 재적생의 경우 TOCT, K-CESA 응시
- 월 1회 이상 활동보고서(팀별) 작성
- 오리엔테이션 교육 필수 참가 (11월 중 예정)

4. 스터디 가이드 라인
- 인적성 검사 공부 • 시사상식관련 스피치 •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 공모전 및 자격증 준비 • 기업분석

5. 운영계획(안)

업무명 및 시행처	해당기간	주요내용
취업동아리 모집 [취업진로지원처]	~ 14. 10월24일	■ 취업동아리 모집 공고(2014.10월 중) ■ 멘토 모집 ■ 취업동아리 선발(동아리별 3인 이상, 약 100명)
취업동아리 운영 [취업진로지원처]	'14.11월 ~15.1월	■ 조별 기업분석 및 인적성시험, 면접 준비 ■ 컨설팅(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및 인사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또는 인사담당자와 취업동아리별 시간 약속을 통한 컨설팅 진행 ■ 해당 분야(직무) 멘토와의 온 · 오프라인 연결
최종결과보고 [취업진로지원처]	'15.1월	■ 동아리별 활동 보고서 – 우수동아리팀 시상

6. 세부 운영 계획(안)
- 주 1회 이상 동아리 모임을 권장합니다. •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동아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금) 17:00까지 (선착순 접수 100명, 예치금 입금순)
가. 재적생(재학생+휴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연수신청]에서 본 프로그램을 신청(저장)
나. 졸업생 : 이메일 (job@khu.ac.kr) 접수 (제목: 취업동아리 신청_학번. 첨부)
다. 동아리가 꾸려진 팀의 경우 : 개인별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수 신청 후 –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라. 예치금납부 • 1인당 3만원 (과정수료 및 참가자 의무사항 준수시 환불)
• 예치금 계좌안내 : 하나은행 278–910011–91404 본인명의로 입금
• 신청순서와 상관없이 예치금 입금 순으로 신청이 완료됨
• 예치금만 먼저 입금할 경우 신청처리 되지 않음. 반드시 연수신청을 한 후에 입금해야 함.

8. 문의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내 취업진로지원처 최선규 선생님 (18번창구) 전화 02–961–0167~8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0월 둘째 주(10.13 ~ 10.17)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놀면서 취업준비하자!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 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현대종합상사 채용면담	해외영업, 경영지원	10.14(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코트라 채용설명회	국내기업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해외투자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내부 경영관리	10.14(화) 14:00–16:00	오비스홀 111호
한솔그룹 채용면담	2014 하반기 공채	10.14(화) 10:00–16:00 10.15(수)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한솔그룹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10.14(화) 16:30–17:30 10.15(수) 16:3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코웨이 채용면담	채용전제형 인턴십	10.16(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 설 턴 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 인 상 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 단 상 담	이종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해외인턴십! 취업성공의 지름길 "

2014–동계 호주단호주단기인턴십 참가자 모집

- **대상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3학년 1학기 ~ 4학기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신청기간 :** 10월 20일(월) ~ 10월 31일(금)
- **인턴기간 :** 2015년 1월 19일 ~ 2월 20일 (5주간)
- **근무 지역 :** 호주 시드니
- **지원금 및 학점인정**
  – 1인당 지원비 50만원~100만원 지원
  – 현장연수활동 1~3학점(자유선택) 부여
- **현지 근무 기업 리스트**
  LG전자, MOBIS, 삼성 C&T, 현대상선, JK Entertainment, MCK 등
- **기 수료자 취업률**
  91.7% (현대자동차, IBK기업은행, 호주현지 제일기획 등)
-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 취업진로지원처(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또는 경희대학교 공지사항 참조
- **문의**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연락처 031–201–3061(담당:현명재)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